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AUG 27
Copy 1962

조 명식 그림

비날론 공장 건설장은 하루'밤 사이에 1만 립방메터의 흙이 뒤번져지고 6백여 톤의 콩크리트가 다져졌다.

낮에는 키 다툼을 하든 벽체들이 밤 사이에 벌써 하늘 높이 자세를 정돈하고는 그 이튿날 아침이면 몸 치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출근하는 동무들은 자기 위치를 잊어 먹고, 퇴근하는 동무들은 나갈 길을 잊어 먹는 일들이 례사였다.

하루 아침은 이런 일까지 생겼다.

부재 직장 동무들이 출근을 하다가 밤 사이에 타입한 콩크리트 포장 도로 어구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거 우리 통로가 차단됐군…》

한 친구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튕겨 나오자 황 원봉 동무가 책망을 했다.

《동무는 비날론 속도를 타고 거북이 소리를 하구 있어, 그 낡은 규정이 비날론 속도 바람에 녹아난지 언제라구 통행 금지란 표말이 없는 걸 봐서두 짐작할게지. 만약에 〈통행 금지 위반 사건〉이 발생되면 내가 책임 질테니까 빨리 가자구》

이렇게 우기고 타입한지 오래지 않는 콩크리트 포장 우로 텀벙텀벙 걸어 갔다.

아니나 다를가 한참 후에 유선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소식인즉 트레스트 건재 실험실장 유 장록 동무는 《급결 방수액》을 발명하여 비날론 속도로 콩크리트를 빨리 굳게 하는 기적적 성과를 올렸다는 내용이였다.

그제야 부재 직장 친구들이 황 원봉 동무의 어깨를 툭 치면서 감탄하기 시작했다.

《황 동무의 소식통은 정확하구두 비날론 속도로군…》

《급결 방수액》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온 건설장에 퍼지자 사람들의 심장에서는 더욱 세찬 불'길이 일어 났다.

충막 콩크리트 타입장에서는 인민군 작업대 동무들의 육박전이 벌러졌다.

그들은 미끼샤가 딸리면 혼합조를 조직해서 미끼샤를 대신했고 수직 운반이 딸리면 기중기를 대신했다.

비날론 공장 건설장에서 새로운 기적이 련달아 나타나고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리 되면 어느날 트레스트에서는 중간 총화가 있었다.

이날 어느 친구는 기적에 너무나 경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그만 입 밖에 튀여 나왔다.

《…글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2 배나 3~4배쯤은 몰라두 기계 조립 1직장에서 올린 것처럼 1만 5천 프로라면 이 세상에 곧이 들을 사람이 있을까?》

시공 지도부에서는 이런 기적의 요인들을 《돈화의 수림 속에서》, 《공청원의 심장》 등에서 찾아 내고 노르마 계산을 맞추었다.

건설장에서는 특징적인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

로동 생산 능률은 치달아 오르는데 사무실의 《리용률》은 형편 없이 떨어진 것이였다.

지배인 동무가 제판 직장에 드나들면서 어느새 제판 작업을 흐름식으로 전환시킨 것은 그만두고라도 리 병호 설계사가 제도판을 둘러 메고 합성 정류 직장에 들어가 붙어 있더니 34 프로로 계획 잡았던 건축의 조립식 비중을 73 프로에다 덜컥 올려 놓고 200 톤의 철과 125 립방메터의 목재, 5.300 공수의 로력을 얻어 낸 다음 시공 일수를 50 일이나 단축시킨 것은 그의 단적 실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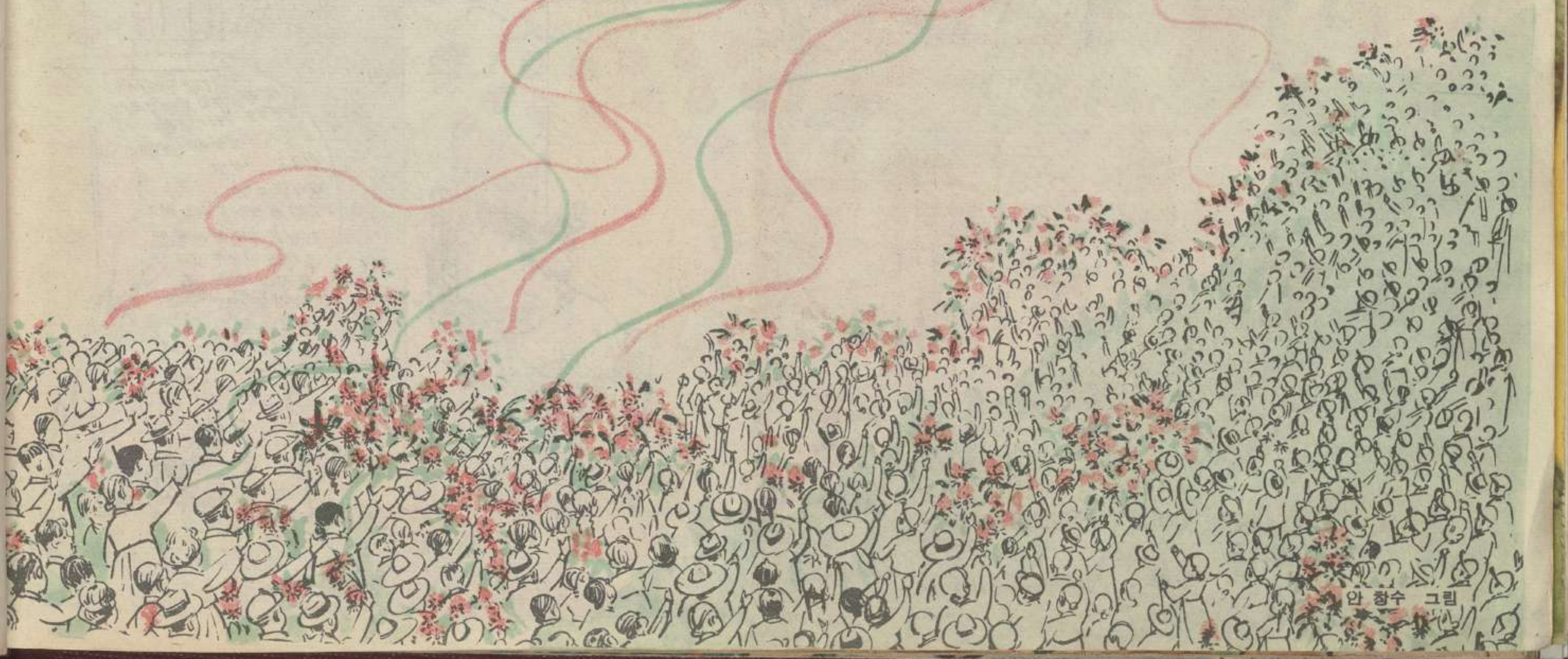
리 승기 박사는 현장에서 키가 각이한 청년들에게 조작 동작을 여러번 시켜 보고서야 조선 사람의 체질에 맞는 방사기를 설치하였다.

1 계단 공사 준공식이 있던 날 비날론 영웅들과 로동자, 기술자, 지도 일'군들은 목이 터지게 만세를 웨치고 나서 마음 속에 이런 것을 간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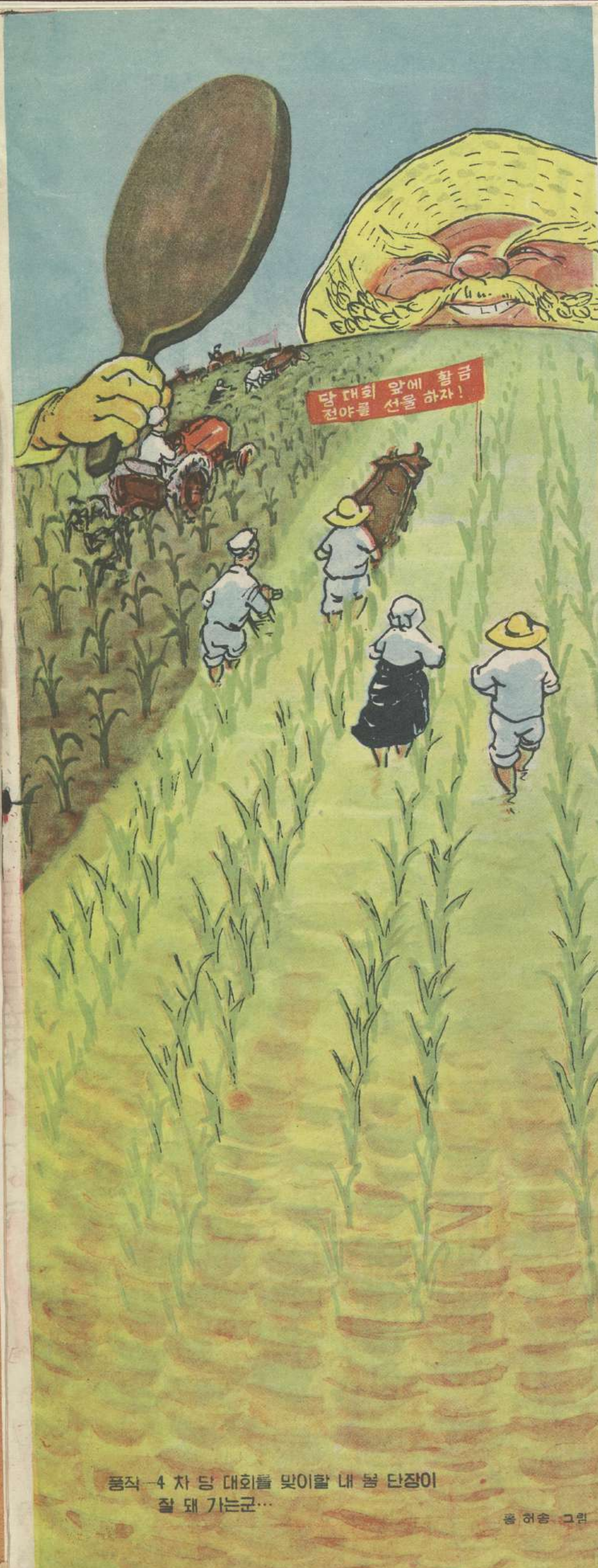
《수상님의 교시를 받들어 비날론 속도를 내였지만 이것은 초보적 성과라는 것을…》

그들이 당에 보낸 선물 《비날론 폭포》는 당의 품 속에서 자란 영웅적 조선 인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날론 속도》의 산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였다.

서 득창



안 창수 그림



풍작—4 차 당 대회를 맞이할 내 봄 단장이
잘 돼 가는군…

홍 허송 그림

대환영 받는 일용품

△ 철제 직장에서

령감 야아, 전탕 기계환데…이 공장이 중앙 공업에 속하나유?

직장장 아니요, 지방 공업에 속하는 생산 협동 조합입지요, 여기서 질 좋은 가위가 생산됩니다.

할머니 파연, 가위도 잘들 만들었다. 큰 것, 작은 것, 재단 가위, 리발 가위…

직장장 자, 가위의 맛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얇은 천과 솜뭉치를 주면서)

령감 야아, 칼로 물 베는 맛이로군! 베는 소리도 안나는구만!

김현수 제가 일본서 오래'동안 가위를 만들었지만 어느 점으로 보나 일본 것보다 썩 좋습니다.

령감 그래요. 가위 생산에서도 일본을 앞섰구만요!

할머니 아니, 근데 저 진렬장에 있는 가위는 파는 거나유?

직장장 그것은 질을 더욱 높이는 대책으로서 가위공들이 경쟁적으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면 품평회를 거쳐서 진렬해 두는 견본입니다.

령감 그것 아주 좋은 대책인데유…

직장장 그러니 가위의 질이 점점 높아졌지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공장은 가위를 30여만 개나 만들어 내는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것은 동남 아세아 각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할머니 말만 들어도 가슴이 흐뭇해지는군요.

령감 여보, 마누라 돌아 가지 않겠슈.

할머니 아니, 별안간 왜 이러시유?

령감 나도 조합에 가서 농사를 전보다 더욱 질적으로 잘 지어야겠소.

할머니 령감두, 우물을 들고 마시겠소… 쯔쯔.

직장장 아하하, 좀 더 구경하시고 돌아 가시지요?!

△ 일용품 직장에서

할머니 경대도 맵시 있게 만들었다. 트렁크, 모자, 구두, 양산, 치솔, 빗…온갖 물건을 다 만드는군요.

선동원 현재 우리 공장에서 116 종의 일용품이 나오는데 그 절반을 이 직장에서 만들고 있지요.

령감 야아!, 116종, 대단한데…

선동원 그것은 모두 지방 원료 원천으로 만든 것인데 금년 중으로 84 종이 더 확대됩니다.

할머니 정말 굉장하외다.

선동원 그래도 만들기가 바쁘게 주문해 간답니다.

령감 인민 생활이 날로 향상되니까 그럴 수 밖에…

할머니 그것두 그렇지만 물건이 잘 생겼고 질이 좋다는 증거입니다.

직장장 그저 종업원들이 제 것을 만드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습지요.

령감 그것이 바로 (무릎을 치며) 인민들에게 대 환영을 받게 되는 바탕입니다!… 근데 이 옥수수'대는 어디다 쓰나요?

선동원 모자나 트렁크도 만들고 천도 짜지요.

령감 그러고 보니 강냥'대는 팔방 미인이로구려!

선동원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주판을 보이면서)

령감 야아! 나무로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겠는데 하물며 돌로 이렇게…

할머니 정말 우리 천리마 기수들 재간도 좋지!

령감 아니, 저 나무 잎, 뿌리, 껍질, 밤 송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쌓아 두었소?

선동원 그게 다 돈 뭉칩니다.

령감 돈 뭉치라니?

선동원 그것으로 물'감도 만들고 섬유도 뽑고, 특히 둥굴레 뿌리는 좋은 풀이 되는데 올해 우리는 풀 쑤는데 드는 쌀 3 톤을 절약하게 됩니다.

령감 야아! 조선의 산은 그야말로 금덩이로구만!

할머니 근데 선동원 아가씨, 이제 우리는 돌아 가야겠수다.

선동원 별안간 왜 그러십니까? (놀라며)

할머니 끝까지 구경하다가는 우리 령감 죽이겠수다.

선동원 예?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할머니 우리 령감이 여러 번 저렇게 감탄하고 놀라니…가뜩이나 간장이 약한 사람인데 병이 도지지 않겠수?

령감 어허허 여보소, 기분이 이렇게 좋으니 수명이 그만큼 는것 같소, 중앙 공업도 아닌 이 해주 문화 일용품 생산 협동 조합에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리용하여 질 좋은 물건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으니 피가 통하고 감정이 있는 공화국 공민으로서 어찌 흥분하고 감탄하지 않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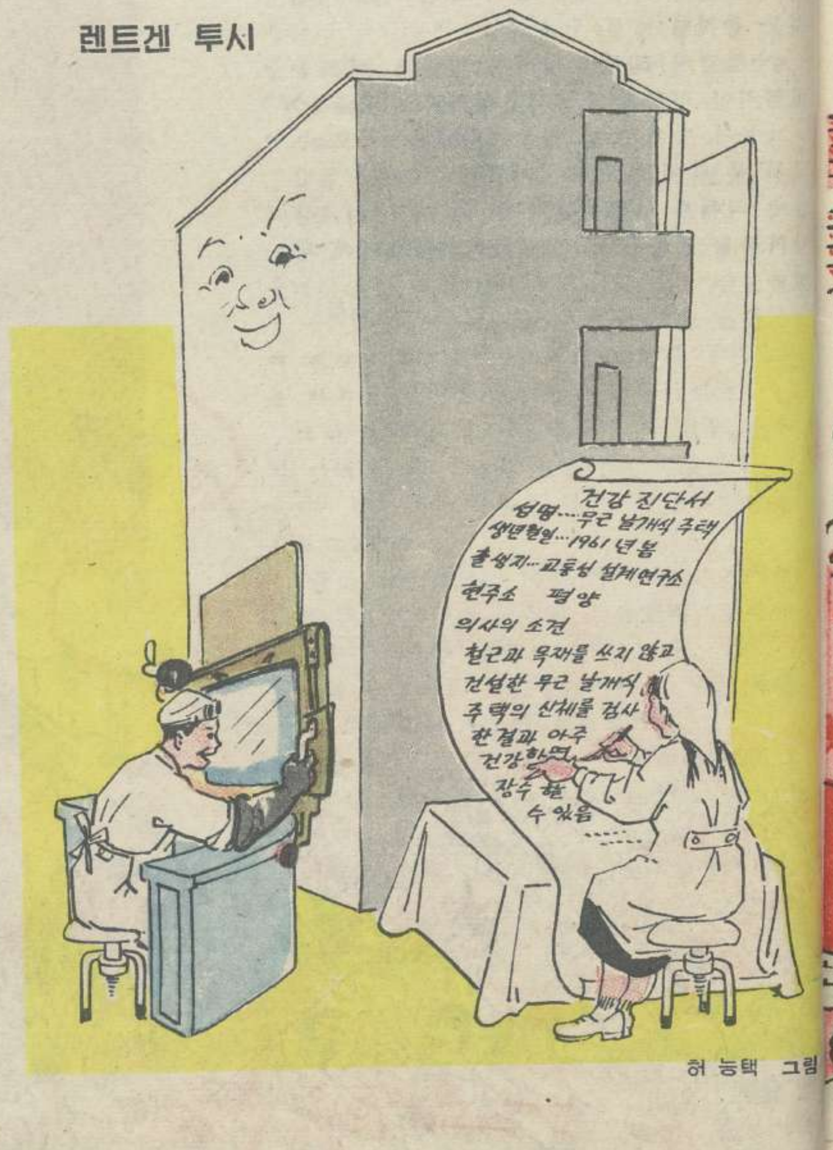
군중 하하하…참 좋은 말씀입니다.

할머니 파연, 령감두! 어느 새 저렇게 풍각쟁이가 됐소?!

선동원 할아버지 말씀이 지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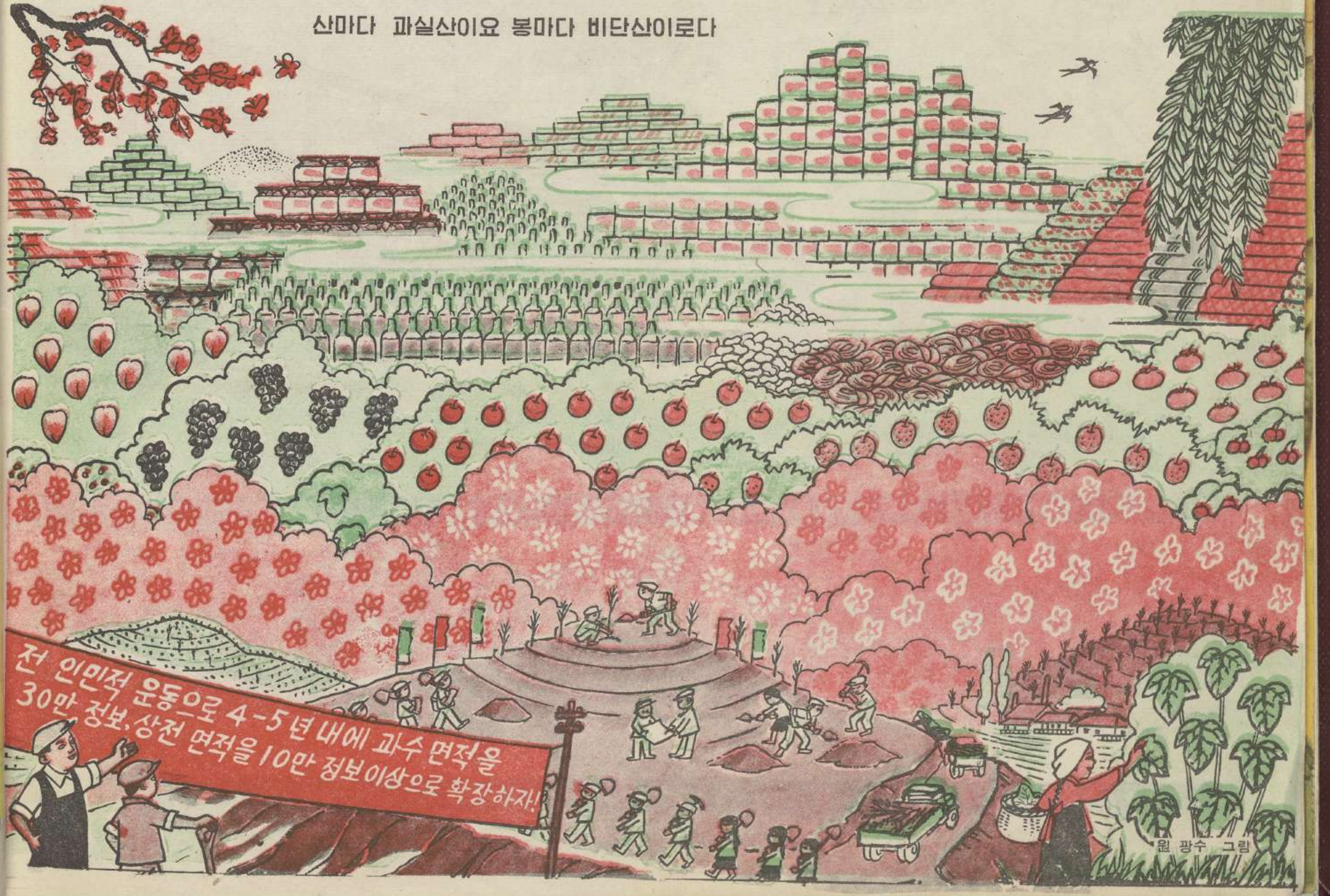
피 호주

렌트겐 투시



허 능택 그림

산마다 과실산이요 봉마다 비단산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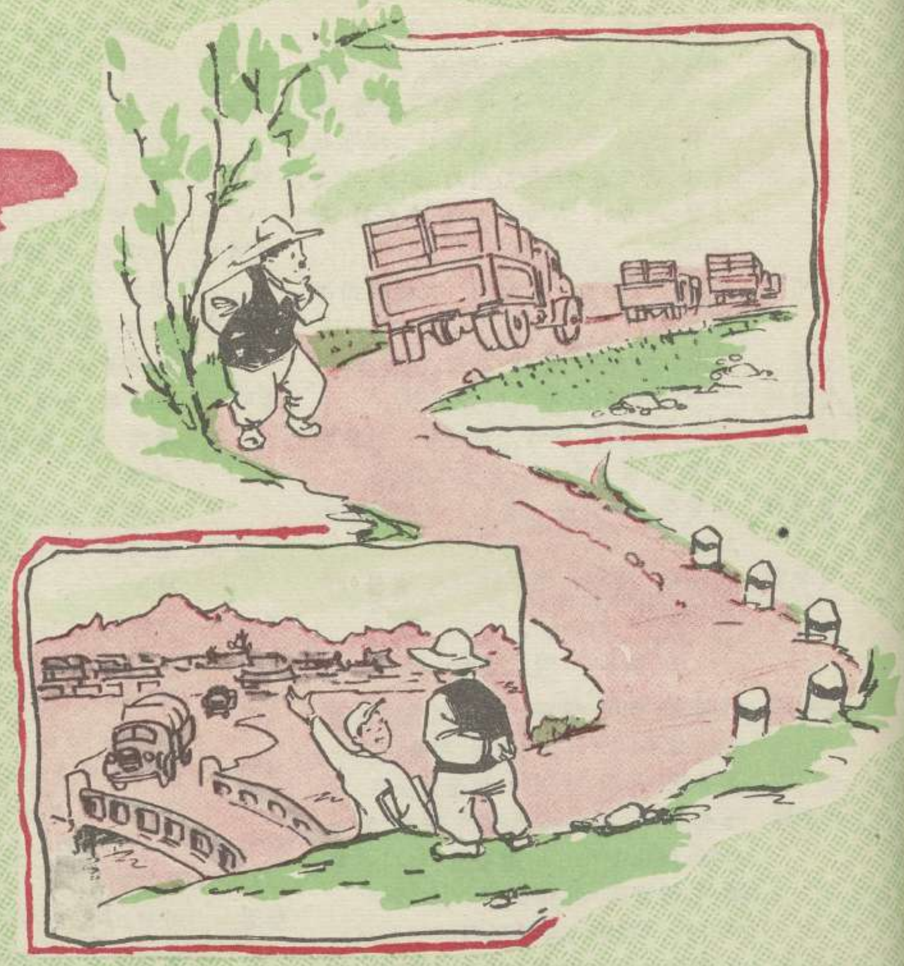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만화통신

관료주의가 있을 때는 오작품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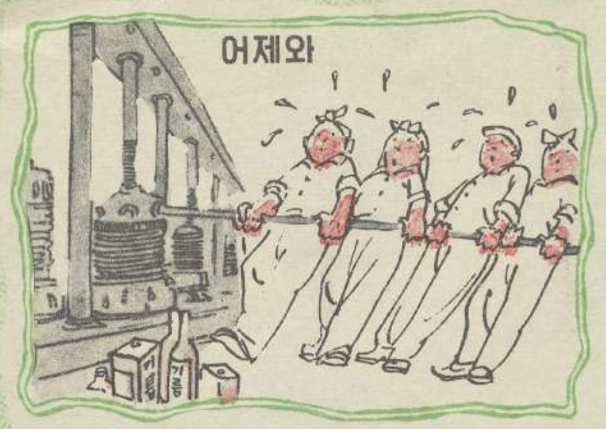
오늘은 사람을 교양 개조하니 제품도 일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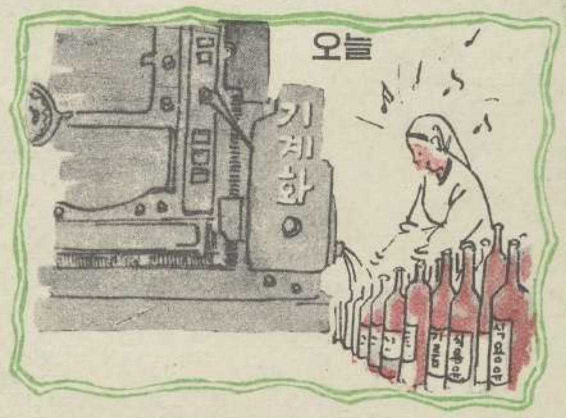
—이 부근에 굉장히 큰 공장이 있나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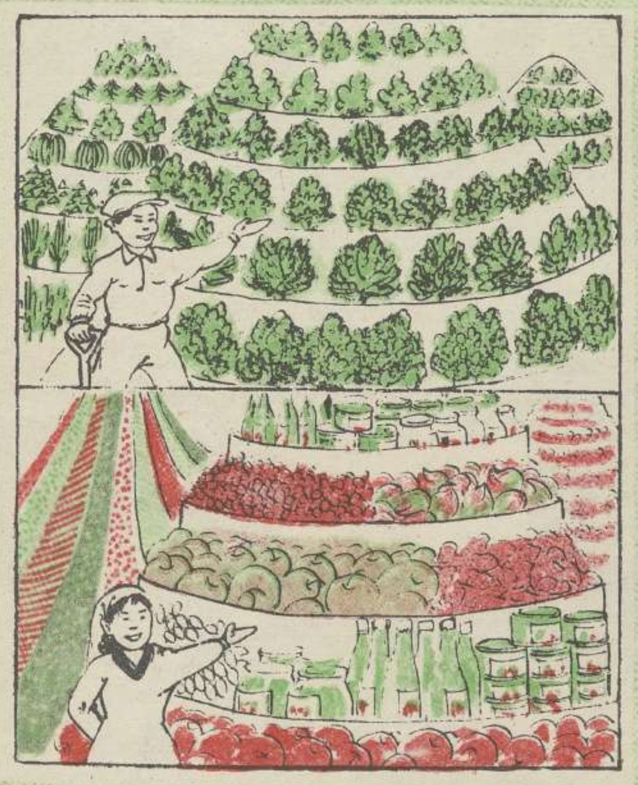
—젊은이! 여기 공장이 어디 있나?
—할아버지! 이 마을이 다 공장입니다
가내 작업반이 조직됐어요!

—품종이 확대되는 속도에 진렬장 짓는것이
따라 가질 못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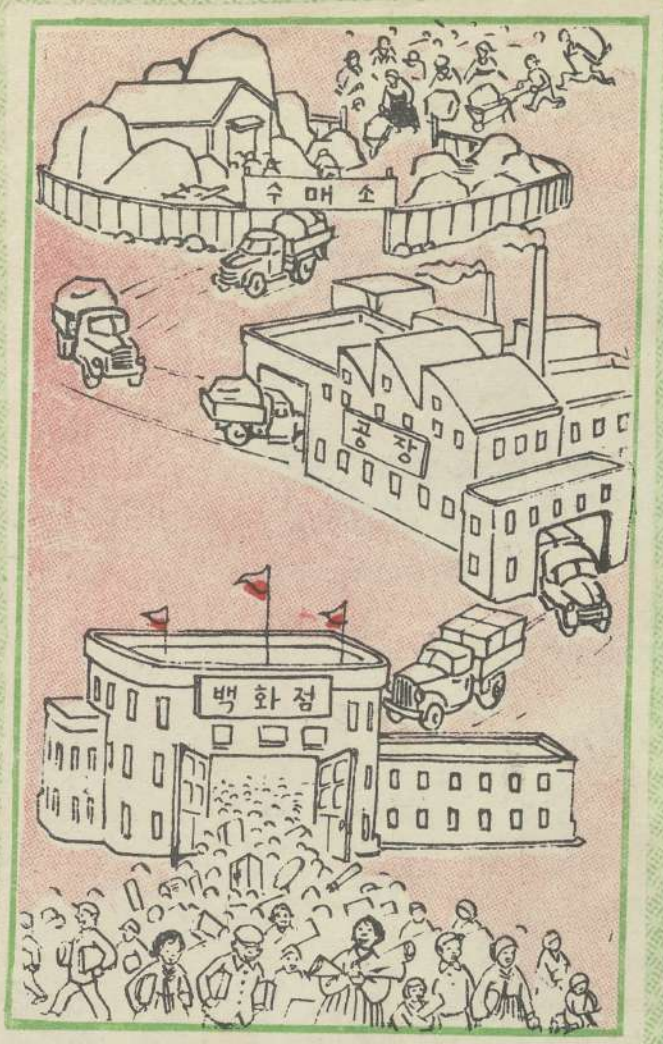


원료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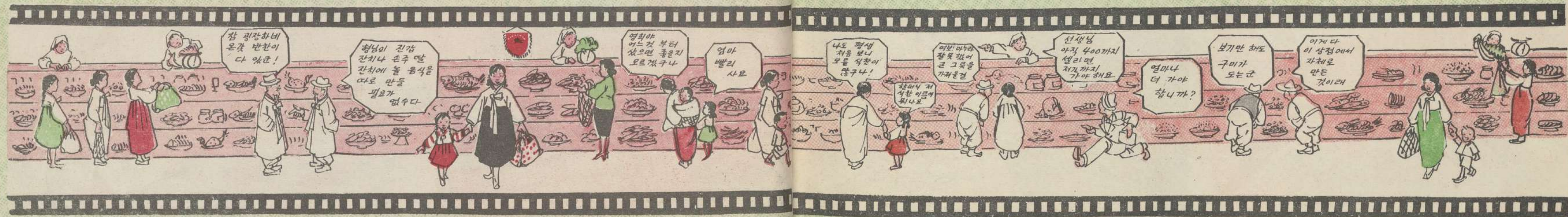
제품산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



—아침 저녁으로 뜨끈뜨끈한 식찬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봉사하니 참 고마운 일이야…

개성 백화점 식료 천리마 분점 일'군들은 자체로 400 여 종의 부식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허 능택 송 시엽 문 룡판 그림

판이한 두 처지

로동

노래가 흘러 나오고

피땀이 흘러 나온다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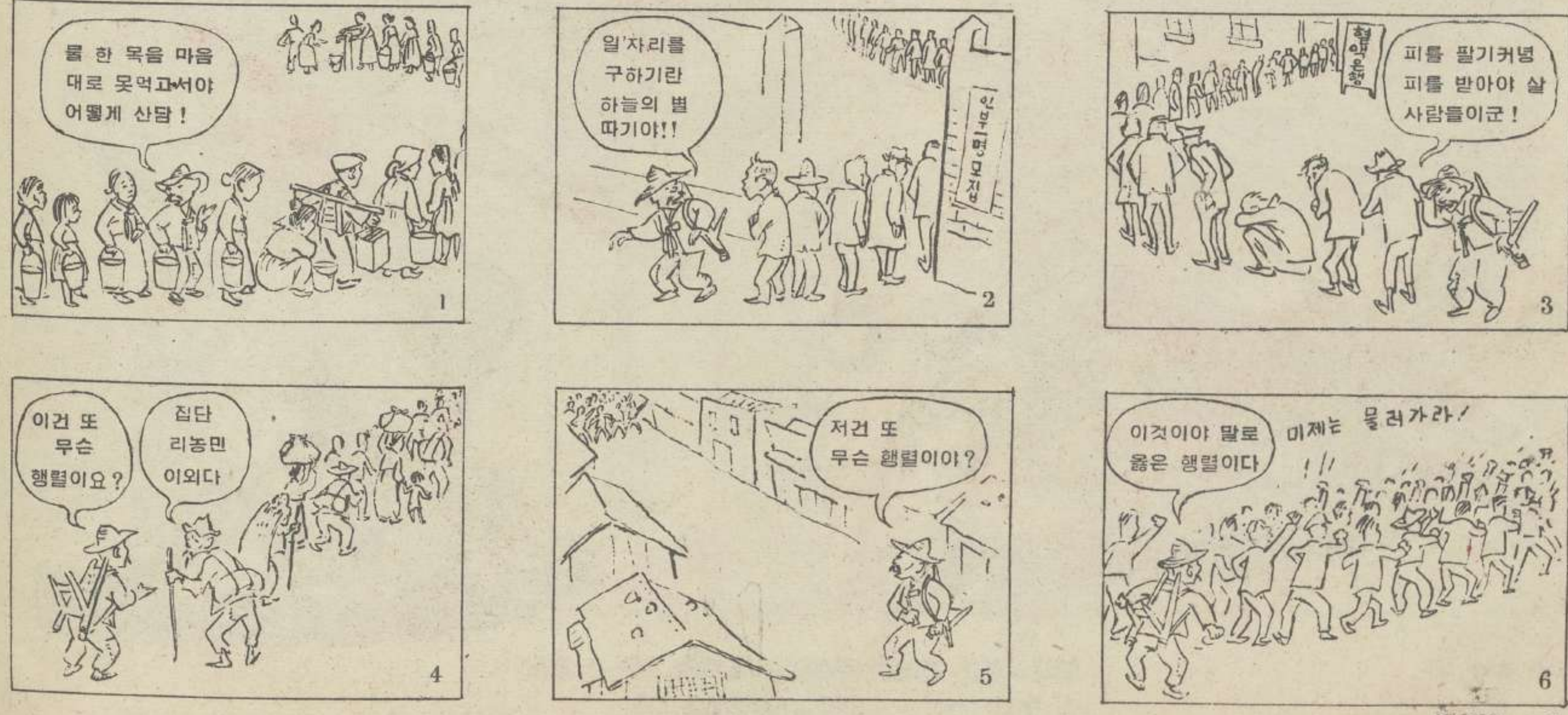
려행

투쟁

최 영근 그림

백 인균 안 창수 그림

망할 세상 (4) (옳은 행렬)



박 승히 그림

최후 발악

미제는 어떠한 발악으로써도 총파산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를 구원할 수 없다.

허 능택 그림

승냥이들의 《군사 정변》 놀음

라 일 봉

주한 미 대리 대사 마샬 그린이란자는 벽에 걸려 있는 달력을 훑어 보다가 고슴도치 같은 머리를 쥐여 뜯으면서 자리에 주저 앉았다.'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는 물러 가라!》《통일만이 살'길》이라고 웨치면서 미제를 반대하여 남북 협상과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한 애국 투쟁에 단호히 궐기하고 있는 사실—폭동을 일으켜 저주로운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 뜨리고야 말 긴박한 국면에 이르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머리에 그려 보면 그린은 더 앉아서 참을 수가 없었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함정 속에 빠진 승냥이 모양으로 이를 갈면서 실내를 돌아쳤다. 이 때였다. 《유엔군》사령관 매그루더가 나타났다. 불안과 초조 속에 싸여 있던 그린은 무슨 구원자라도 만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와 마주 앉았다.

《어떻게 되였습니까?》

《계획대로 돼 나가옵지요》

《여하튼 빨리 손을 써야 하겠습니다. 보십시요, 매그루더 장군! 이제 닷새만 지나면 남북 학생 회담을 하겠다는 민족 통일 전국 학생 련맹까지 나오게 됩니다. 얼마전에 우리 국무성에서 대사를 막는 길은 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 독재를 실시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념려마십시요. 각하! 준비는 다 되였으니깐요. 시간은 래일 새벽 3시! 총 지휘자는 우리가 이미 지목한 장 도영, 그외 지휘자들은 전날에 토의한 대로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린은 매그루더의 말에 만족하면서 소위 《군사 정변》 지휘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머리에 그려 보았다.

그들은 서울 뒤'골목에서 칼을 빼들고 《깡패》 노릇을 해먹던 자가 아니면 《불량배》, 《망나니》들이며 괴뢰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 후에는 미국놈들이 시키는 대로 앞장에서서 《반공》을 불어 댄 철부지들이다.

《믿을만한 사람들입니다. 매그루더 장군》

이렇게 하여 지난 5월 16일 새벽 서울에서는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소위 《군사 정변》이라는 것이 일어 났다.

《사령관 각하! 륙군 참모 총장 장 도영은 각하의 명령대로 정부 기관들을 공격하여 이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혁명 위원회와 계엄 사령부 조직도 준비됐으며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엄금하고 출판 보도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공을 축하합니다. 장 참모 총장!》

《군사 정변》을 일으킨 날 아침 7시에 유엔군 사령부에 찾아 가서 《군사 정변》의 경위를 보고한 장 도영을 앞에 세워 놓고 매그루더는 이렇게 찬사를 주었다. 여기에는 미국 대리 대사 그린도 와 있었다.

《장 참모 총장! 당신은 이제부터 할일 많습니다. 우선 반공을 국시 제 1주의로 삼고 우릴 반대하고 〈통일만이 살'길〉이라고 웨치는 자를 모조리 처단하시요.》

《핫!》

이리하여 남조선은 군사 파쑈의 도가니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평화 통일을 갈망하고 그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던 애국 인사들은 물론 수 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령장 없이》 체포하여 군사 재판에 넘기며, 《류언 비어의 날조.류포》라는 《죄》를 씌워 사람들을 마구 잡아 가두는 등 전대 미문의 검거 선풍이 온 남조선을 휩쓸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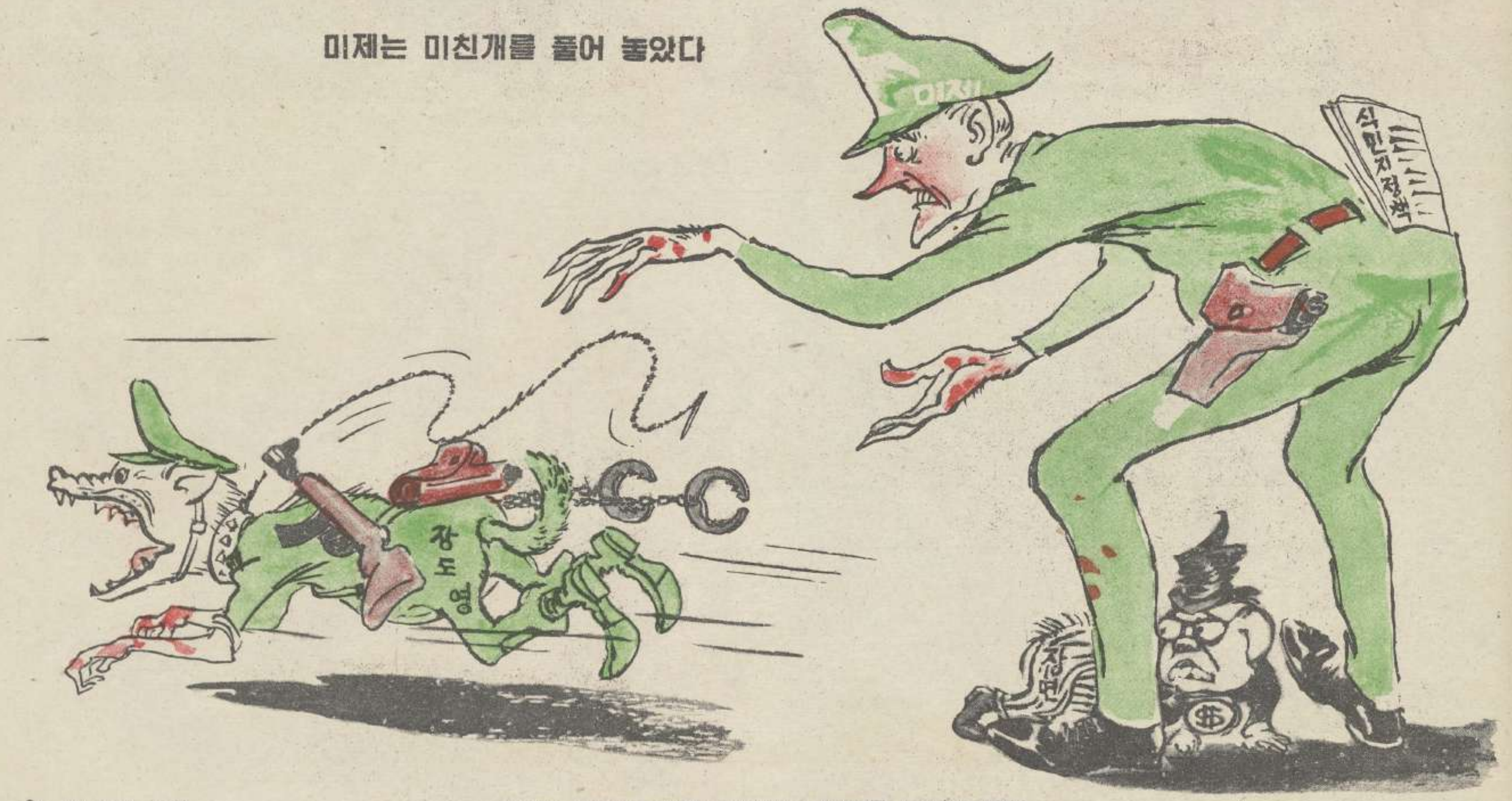
이때 남조선을 방문한 서방 기자들이 미국 대사관을 찾았다.

그들은 미국 대리 대사 마샬 그린에게 이번 군사 정변에 대해서와 이에 대한 미국의 립장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들이댔다. 그린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실로 뜻 밖의 일이였습니다.》

기자들은 그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 보면서 고개를 기우뚱 거렸다.

미제는 미친개를 풀어 놓았다



박 승히 그림

미제—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을 모조리 물어…
장 도영—핫! 분부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살인귀의 자랑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며 략탈하는 만행을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미제는 유엔의 표식을 도용하여 남조선에서 야만적 살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드러난 《박애》

미제가 겉으로는 《박애》요 《인도주의》요 하고 부르 짖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야수적 살인 강도배라는 것을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만행이 실증하고 있다.

백 인규 그림

닭 쫓던 개 을 쳐다 보기

권 승균

세관장은 직원들을 몰구 항구로 나갔다. 일본에서 도착한 배에 밀수품이 들어 있다는 정보를 받았던 것이다.

배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관들은 손님들의 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한 젊은이가 짐짝을 짐'군에게 지우고 배에서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옳지 저놈이구나》 세관장은 안경 넘어로 청년의 행동만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청년은 세관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나 가려고 했다.

《여보! 짐을 봅시다》

《이건 외교 사절의 짐이요》

《외교 사절?! 무슨 증명이 있소》

《증명서는 내 뒤를 따르고 있지 않소》

청년의 뒤에는 양키 녀자가 흔들흔들 따르고 있었다.

《오유— 한국 세관 버릇 없습네다. 미국 상인 외교관 대우해야 합네다》 하고는 자동차에 짐을 싣고 휭하니 달아나고 말았다.

미제 침략자들과 괴뢰 일당 간에 체결된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에 의해서 미국 장사'군의 가족까지도 외교관의 대우를 하기로 되였던 것이다.

닭 쫓던 개 울 쳐다 보기로 세관장과 직원들은 멀어져 가는 자동차만 바라 보고 있었다.

선결 문제

—이 썩은 놈들을 없애야 우리가 쓰레기 줏는 신세를 면하겠다!

백 인규 그림

남조선 기행 3

암흑의 거리 서울 (2)

길거리에 앉아 이들은 세월 없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의 처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의 과거 처지는 모두가 다르다. 지게'군은 고급 기능공이였고 구두 닦는 소년은 중학생이며, 구두 수선공은 떳떳한 선원이였으며, 빈대떡 장사는 배우였다.

최근 전기 료금이 또 다시 50%나 껑충 뛰여 올랐다 《북조선에서 주겠다는 전기를 받으면 이렇지는 않을텐데 해결도 안 해주고 버티기만 하니 무슨 판인지 통 모를 일이지요》라고 중소 기업가들은 한탄하고 있다.

복덕방 할아버지들도 집 매매가 없어 비명을 올리고 있다. 서울 시민들의 빈한한 살림살이를 여기서도 그 일단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영등포! 이곳은 해방전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공업 지대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오늘은 연기 나는 굴뚝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미국 《원조》의 산물인 것이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인민 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다. 어린이의 급한 병으로 병원에 뛰여 가는 아주머니에게도 손 들라고 총'부리를 들이댄다.

일'자리를 구하기란《황소를 쥐구멍에 몰아 넣는》격이다. 왜 일'자리를 구하다 못해 피를 팔고 쓰레기 통을 뒤져야 하며 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까지 되는가! 미제는 남녘 땅을 기아와 빈궁의 생지옥으로 인민의 감옥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군 나가라!》, 《통일만이 살'길이다》라는 웨침은 남녘 땅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도 군대도 땅크도 그들의 념원을 꺾을 수는 없다.

조 명식 그림

안 된다!

안 창수 그림

큐바에서의 《전과》

— 모가지는 어떻게 했느냐?

— 큐바에서 떼웠습니다

원 광수 그림

함부로 날뛰지 말라!

안 창수 그림

막을 수 없는 힘

자본의 철쇄를 반대하여 생활상 권리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자본주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근로자들의 파업 투쟁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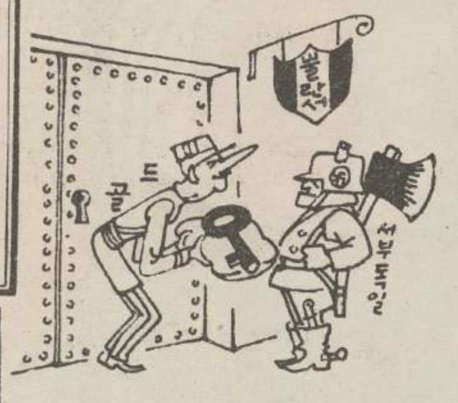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패전 추도식

허 능택 그림

만화 속담

도적에게 열쇠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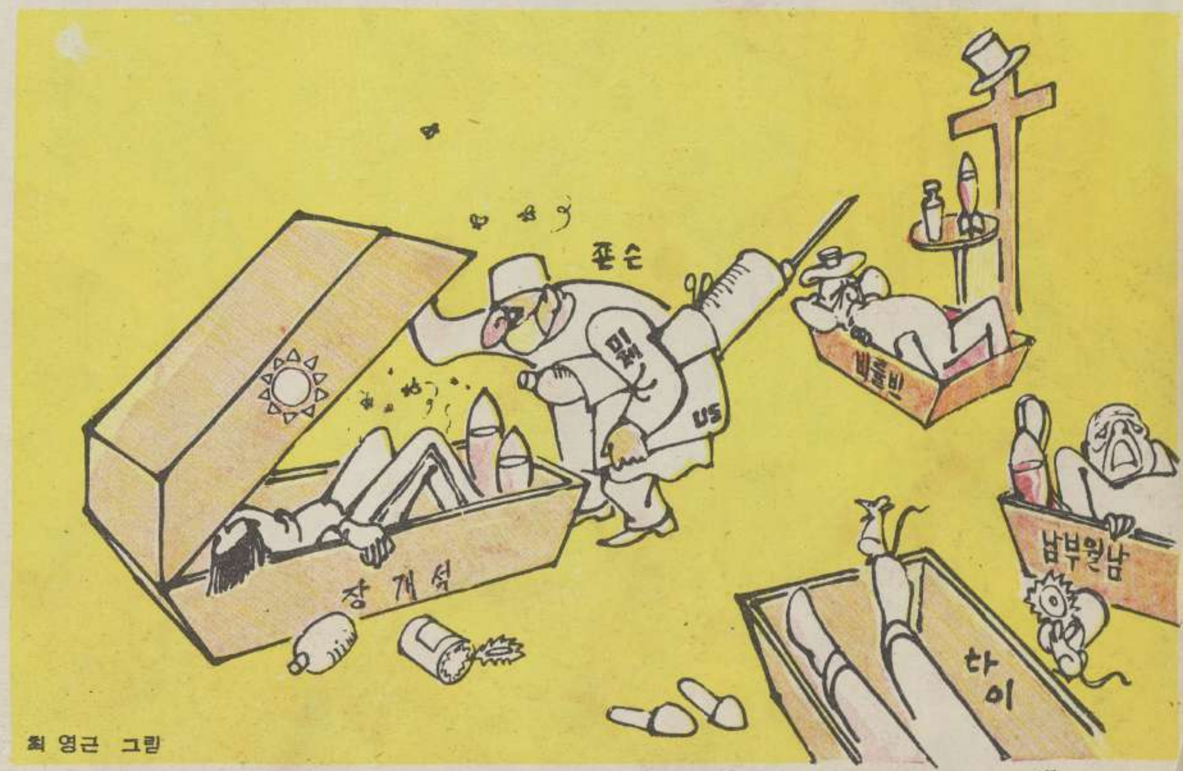


불란서는 지난 시기 수차례에 걸쳐 파쑈 독일에게 침범당하였던 력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서부독일 군대를 자국 령토에 끌어 들이고 있다 이것은 도적에게 열'쇠를 주는것과 같은 우둔한 행동인 것이다

최 영근 그림

미국 부대통령 죤슨은 남부 월남, 비률빈, 대만, 타이 등에 기여 들어 사경에 처한 이 지역 괴뢰들을 추켜 세워 보려고 책동하였다.

부질 없는 왕진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 25395
발행 1961.5. 20 (값 40 전)

첫 우주 정복자

사람을 태운 쏘련의 위성—비행선의 지구에의 귀환은 위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8280 хельсаль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